

전북도-덴마크, 해상풍력으로 협력관계 돈독해지나?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공감대'

엔센 주한 덴마크 대사
송하진 도지사서 면담
수소차 등 신산업과 함께
농업 분야 등 대화 이어져



아이너 엔센 주한 덴마크 대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와 송하진 도지사가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과 덴마크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관련 국내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에 성공한 전북도와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간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질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아이너 엔센 주한 덴마크대사와 면담하고, 해상풍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과 덴마크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단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 선도국인 덴마크의 풍부한 경험과 우수 정책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엔센 주한 덴마크대사는 "정부 주도의 풍력단지 조성, 군산항 등의 배후항만시설등의 풍부한 자원이 있어 전북도가 세계적 해상풍력단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한국-덴마크 양국 간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전북도와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기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해상풍력에 이어 수소·전기차, 탄소 등 신산업과 함께 전통적으로 전북도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도 이어졌다.
송 지사와 엔센 대사는 양 지역의 친환경 분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전북과 덴마크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전북-덴마크 지자체 간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 위해

송하진 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면담 가져

전북도는 9일 전북도청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올해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경찰청장의 전북도청 방문으로 성사됐다.

전북도의 자치경찰제 추진상황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국비 지원, 관련 법 개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하면서 제도 도입의 효과를 통해 자치분권의 가치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장, 지역인재채용 사회공헌활동 확대 요청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9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만나 지역인재채용과 지역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정실에서 박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인재채용에 관심을 보여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전북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안착하고 직원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정주권고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의 가족동반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박희자 도의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할 것'

전북도의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9일 '먹거리가 안전한 전북도 민들기'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촉구' 5분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먹거리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먹거리 복지 증진과 전북도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친환경 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공공급식 정착과 함께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서로 보완·상생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 14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조차도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식재료 안전성 등에서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다"며 "급식과 관련해 생산·유통을 조사해 중점되거나 유기적이지만 못한 부분을 광역단위 푸드플랜이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1~2월 도정 발전 빛낸 우수부서 선정 | 전북도 '이달의 으뜸 도정상' 시상식

투자금융과 등 6개 부서

전북도는 올해 1~2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에는 투자금융과와 일자리경제정책관, 우수부서에는 법무행정과, 인재개발원, 수산기술연구소가 선정됐다.



새만금 사업현장 둘러보는 행정부지사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수 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선정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시작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법무행정과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2년 연속 으뜸 기관으로 선정, 인재개발원은 남원시 상생 협력 사업으로 지역업체 경제활성화를 수산기술연구소는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활동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같이 사는 사회구현'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 공모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점과 개인 가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 으뜸도

정상은 2017년부터 200여 부서가 선정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도정 발전을 위한 기틀로 빛을 발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LH 투기사실 확인 시 일벌백계"

변창흠 국토부장관, "재발방지책 신속히 마련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하고 투기사실 확인 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광명 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투기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단산처리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장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 정부 성공 위해 역할 다할 것"

민중 이낙연 대표, 당 대표직 내려놓고 대권 레이스 시동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192일 만에 내려놓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원·당수에 따라 이날 퇴임하게 된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퇴임인사에서 먼저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고, 격정해주시던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이 많이 확인됐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 당 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못된 잘못했던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국회에 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제4·3 특별법 전면 개정 ▲5·18 3법 의결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부족함'과 '정치적 어려움'을 꼽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노력하겠다"며 대권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그는 4·7 재보궐선거 삼일선 대위원장을 맡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짧은 임기 동안 정부와 매번 싸우는 정권심판론자들에게 주민의 생활을 망치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로부터 얻어낸 건 얻어가면서 주민 삶과 서울의 발전에 노력하는 그런 길을 택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라 생각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전북선관위,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청소년꿈꾸림센터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청소년 대상 특수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과 협업을 12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선거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능동적

이고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주권행사의 방법과 유권자의 자세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토론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단체와 협력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